

## 구자은 LS 회장 모친 유한선 여사 별세

구자은 LS그룹 회장의 모친인 유한선 여사(사진)가 19일 오전 10시께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3세다.



고(故) 유한선 여사는 1933년생으로 고 구두회 예스코명예회장과 결혼해 구자은 회장을 비롯해 구은정 태은물류 회장, 구지희 씨, 구재희 씨 등 1남 3녀를 뒀다. 며느리는 장인영 씨, 사위는 김중민 씨, 데이비드 누네즈 씨, 김동범 씨다. 유 여사는 평소 검소하고 자상한 성품으로 자녀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돼 왔으며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해 왔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원관희 기자



### LG생활건강, 청주 무심천 정화 활동 참여

LG생활건강이 지난 16일 청주 무심천 일대에서 사 1하천 사랑'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LG생활건강 청주공장 임직원들은 약 2시간 동안 무심천 체육공원 인근(청주대교~제1운전교)에서 50리터 종량제 봉투 5개 분량의 쓰레기를 수거했다. 주로 사람들이 버리고 간 돗자리, 스티로폼, 페트병, 일회용품 등이다. /LG생활건강



### LG유플러스, 장애인식 개선 '인클루시브 데이' 개최

LG유플러스는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LG전자와 함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식 개선 프로그램 'LG 인클루시브 데이'를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서울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서 열렸으며, 장애인복지 단체와 협력해 공연, 전시,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LG유플러스



### 동화약품, '윤도준 의학상'에 정정영 원장 수상

동화약품은 지난 16일 롯데호텔 서울에서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함께 '제10회 윤도준 의학상' 시상식을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윤도준 의학상은 동화약품 윤도준 회장이 국내 정신의학 발전에 기여한 인물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지난 2016년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협력해 제정했다. 올해 수상자는 정신건강 정보의 대중화에 기여한 정정영 광화문순정신건강의학과의원 대표원장이다. /동화약품

### 인사

◆고용노동부 ◇국장급 승진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정해영

### 부음

▲이민숙씨 별세, 이재원(광주MBC 기자)씨 누나상 = 18일, 광주 북구 그린장례문화원 예곡실, 발인 20일 오전 11시, 062-250-4455.

## 한국, 디스플레이 국제표준 의장국 첫 진출

### IEC TC110 의장에 삼성 이창희 선출 OLED·플렉서블 표준 주도권 확보 '기술 넘어 표준' 초격차 기반 마련

우리나라가 디스플레이 국제표준화 총괄 국가로 도약한다. 대한민국 디스플레이 산업이 '기술 초격차'를 넘어 전세계 디스플레이 표준을 설계하고 주도하는 '표준 초격차' 국가로 도약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디스플레이 기술위원회(IEC 110)' 차기 의장에 삼성디스플레이 이창희 최고기술책임자(CTO)가 당선됐다고 19일 밝혔다.

IEC TC 110은 OLED와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등 차세대 디스플레이 분야의 국제표준을 총괄하는 핵심 기구다.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미국 등 디스플레이 강국들이 미래 시장 선점을 위해 치열한 표준화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창희  
삼성디스플레이  
최고기술책임자(CTO)

특히 이번 당선은 지난 9년간 의장직을 수행하며 국제표준화 영향력을 확대해 온 중국의 독주를 막고, 한국이 위원회 전체를 아우르는 컨트롤타워를 맡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간 한국은 9개 작업반 중 7곳에서 실무를 주도해왔으나, 전체 위원회를 총괄하는 의장직 수임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창희 CTO는 인하대 물리학과와

서울대 전기공학부 교수를 거친 디스플레이 전문가로, 지난 2018년부터 삼성디스플레이 부사장을 맡고 있다. 의장 선거에서는 지난 20여 년간 OLED 기술 개발과 표준화 기반 마련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그는 중국 측 후보와 경합한 끝에 최종 당선됐으며, 올해 10월부터 향후 6년간 TC 110을 이끌게 된다.

이 CTO는 의장 수임 기간 동안 차세대 디스플레이의 기술 방향을 설정하고 회원국 간 합의를 도출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 이는 우리 기업의 최신 기술이 국제표준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커지는 동시에, 글로벌 디스플레이 시장의 게임의 룰을 한국이 직접 주도할 수 있게 됨을 의미한다.

국표원은 앞서 지난해 국내 디스플레이 전문위원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와 함께 이 CTO를 후보자로 지명하고, TC 110 회원국들을 대상

으로 지지 활동을 전개해 왔다.

김대자 국표원장은 "이번 의장 수임이 우리나라가 미래 디스플레이 표준 개발 경쟁에서 실질적인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며 "국표원은 의장직 수행 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들의 국제표준화 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TC 110은 현재까지 216건의 디스플레이 국제표준을 제정했으며, 한국이 제안한 14건을 포함해 총 44건의 국제표준을 개발 중이다. 우리나라는 2023년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주름 및 굴곡 측정방법', 'OLED 구부 휘도 및 균일성 측정방법' 표준화를 주도했으며, '물러블 디스플레이 변형 측정방법' 표준화가 한국 주도로 개발 중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metro

## 삼성, '에디슨 어워즈' 금2·은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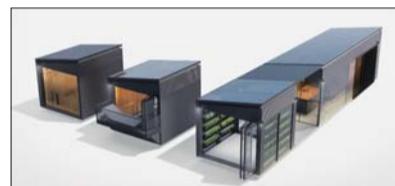
### 스마트 모듈러하우스·비전AI 금상 비스포크AI콤보·3D사이니지 은상

삼성전자가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포트마이애스에서 열린 '2026 에디슨 어워즈'에서 금상 2개, 은상 2개로 총 4개의 상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혁신의 오스카상'으로 불리는 '에디슨 어워즈'는 발명가 토머스 에디슨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1987년부터 매년 미국에서 개최되는 권위있는 상으로, 상업 기술·몰입과 상호작용 경험·라이프스타일과 엔터테인먼트·디자인 등 총 14개 분야에서 혁신적인 신제품과 서비스 등에 금·은·동 수상을 선정해 시상한다.

삼성전자는 혁신적인 기술력을 인정받아 최고상인 2개의 금상을 수상했으며, 은상도 2개 수상했다.

금상 수상작은 AI 홈 기술이 적용된 미래형 주택 디자인 프로젝트인 '스마트 모듈러 하우스'와 삼성 TV만의 통합 AI 플랫폼 '비전 AI 컴패니언'이다.



'2026 에디슨 어워즈'에서 금상을 수상한 삼성전자 미래형 주택 디자인 프로젝트 '스마트 모듈러 하우스'.

/삼성전자

언'이다.

은상 수상작은 일체형 세탁건조기 '비스포크 AI 콤보'와 무안경 3D 디스플레이 '스페이스 사이니지'이다.

삼성전자의 AI 홈 기술이 적용된 미래형 주택을 컨셉으로 한 디자인 프로젝트인 '스마트 모듈러 하우스'는 소비자 솔루션 분야의 사람 중심 가정 솔루션 항목에서 금상을 받았다.

TV를 시청 중인 사용자에게 AI 기술 기반으로 최적화된 답변과 정보 등 인사이트를 제공해, 즐겁고 편리한 시청 경험을 제공하는 '비전 AI 컴패니언'은 라이프스타일 및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AI 기반 미디어 경험 항목에서 금상을 수상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 상미당홀딩스, 장애인 제빵 교육 진행

### 서울베이커리 근로자 20명 참여

상미당홀딩스가 행복재단과 함께 장애인의 날을 맞아 발달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제과제빵 기술교육을 진행했다.

지난 17일 파리크라상 송파교육장에서 진행된 이번 교육에는 사회복지법인 '애덕의 집'이 운영하는 '서울베이커리' 소속 발달장애인 근로자 20명이 참가했다. 서울베이커리는 환경을 고려한 원료와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베이커리 제품을 생산하며 장애인 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바탕으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장애인근로사업장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 LG전자, 세계 곳곳서 친환경 캠페인

### 나무심기·폐가전 수거로 ESG 실천

LG전자가 세계 곳곳에서 나무심기, 폐가전 수거 캠페인을 펼친다.

LG전자는 구성원들과 함께 서울 마포구 노을공원을 찾아가 가족 동반 나무심기 활동을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LG전자는 미래 세대를 위한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체감하고 일상속 실천으로 이어가자는 취지에서 2023년부터 매년 본사 구성원들이 주도해 노을공원 나무심기를 이어오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오는 22일 지구의 날에 맞춰 나무심기 활동을 펼친다. 사우디 도심 녹지화 프로젝트 '그린 리야드(Green Riyadh)'에 동참해 리야드 시내 공원 조성을 지원하는 활동이다. 이 외 사막 지역에 나무를 심는 활동도 병행한다.

스페인에서는 이베리아반도 산림 복원을 위한 '스마트 그린 트리' 캠페인을 2017년부터 매년 운영 중이다. 지역 토종 꿀벌 증식을 통해 식물 번식을 돕는 '스마트 그린 비즈' 캠페인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LG전자는 폐가전 수거를 통해 사



LG전자 구성원들이 지난 18일 서울 마포구 노을공원을 찾아가 자녀들과 함께 나무심기 활동을 진행했다.

/LG전자

원순환 활동도 이어간다. 이달에만 한국, 미국, 캐나다, 브라질, 독일, 폴란드, 라트비아, 필리핀, 싱가포르, 인도 등 10개국에서 폐가전 수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필리핀 법인은 지난달부터 법인사육에 폐가전 수거함을 설치하고 수거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싱가포르법인은 지난 15일부터 이틀간 수거 활동을 펼쳤다. 한국에서는 20일부터 임직원 대상으로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와 지역별 전용 수거함을 활용한 폐가전 수거 캠페인을 진행한다.

/차현정 기자 hyeon@

## 에코프로, 포항·청주서 장애인 상생 활동

### 포항 배식 봉사·청주 체육 지원

에코프로가 제46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포항과 청주 지역에서 나눔과 상생 활동을 펼치며 지역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했다.

에코프로는 17일 포항시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이 주관한 '북부에서, 함께라면' 행사에 참여해 특식 배식 봉사와 나눔 활동을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행사는 지역사회에서 기부받은 라면을 장애인 봉사자들이 포항 내 장애인 단체와 아동복지관에 직접 전달하는 프로그램으로 나눔

의 의미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에코프로 임직원들은 봉사자로 참여해 장애인과 보호자, 지역 주민 400여 명에게 점심 특식을 제공했다. 같은 날 청주에서는 장애인 체육 발전을 위한 지원 활동도 이어졌다. 에코프로는 장애인 선수들의 훈련 환경 개선과 사기 진작을 위해 충북장애인체육회에 기부금 2500만 원을 전달했다. 이어 산하 장애인 스포츠단인 온누리스포츠팀 훈련장을 찾아 선수들에게 응원 간식을 전달하며 격려했다.

/원관희 기자 wkh@